

#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위력과 불패성의 원천

리영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사회력사발전에서 차지하는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에 맞게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며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제도이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기 위하여서는 그 위력과 불패성의 원천에 대하여 옳바로 인식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과 인민대중이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통일단결되여 우리 혁명의 강력한 자주적인 주체를 이루고있으며 자주, 자립, 자위의 튼튼한 기초우에서 끊임없이 강화발전되여나가는 여기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위력과 불패성의 원천이 있으며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습니다.》

(《김일성전집》 제89권 222~223페이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쟁취한 더없이 귀중한 혁명의 전취물이다.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신이 선택한 길을 따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일떠세운 사회주의제도가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것을 실생활을 통하여 깊이 체험하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로써 그 위력과 불패성을 남김없이 과시하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위력과 불패성의 원천은 무엇보다먼저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이 하나로 굳게 통일단결되여 우리 혁명의 강력한 자주적인 주체를 이루고있는데 있다.

사회주의제도가 자기의 위력과 불패성을 발휘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의 주체가 튼튼히 준비되어있어야 한다.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이다. 다시말하여 수령, 당, 대중이 조직사상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결합된 가장 공고한 통일체이다.

혁명의 주체에서 수령은 인민대중의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최고뇌수이고 통일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이며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인민대중을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결합시키고 수령의 사상과 명령, 지시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데서 중추적기능을 수행하는 혁명의 참모부이다. 그리고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결정적력량이고 직접적담당자이다.

혁명의 주체에서 수령, 당, 대중은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운명공동체로서 땀해야 땀수 없는 혼연일체를 이룬다.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것은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는데서 결정적의의를 가진다.

혁명에는 혁명력량과 반혁명력량사이의 누가 누구를 하는 판가리싸움인것만큼 혁명의 주체를 어떻게 강화하고 그 역할을 어떻게 높이는가 하는데 따라 혁명의 운명이 좌우되게 된다.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여야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사업을 성과적으

로 진행할수 있으며 적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수 있다.

그러므로 혁명하는 사람들은 혁명과 건설의 승패의 근본요인을 객관적조건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주체에서 찾아야 하며 혁명과 건설을 떠밀고나가기 위한 근본방도도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데서 찾아야 한다.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는것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근본문제로 된다.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지 않고서는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승리할수 없으며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할수도 없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은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사회의 모든 분야를 주체의 요구에 맞게 개조해나가는 과정이다.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서도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마련하고 사회주의경제관리방법을 개선해나가는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것이다.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야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있다는 것은 우리 혁명투쟁력사에 의하여 확증된 혁명의 고귀한 진리이다.

우리 당이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 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운명으로 결합된 우리 혁명의 주체를 불패의것으로 강화하고 그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이도록 한것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한 기본요인으로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전체 인민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 우리 혁명의 주체를 수령, 당, 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룬 불패의 역량으로 다져놓은것은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가장 귀중한 성과이며 여기에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가 이룩한 모든 승리의 비결이 있는것이다.

주체혁명의 새시대, 선군시대에 우리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의 통일체로 비상이 강화되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당과 군대와 인민이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굳게 결합되어있으며 수령을 중심으로 혁명적의리와 동지애로 굳게 결속되어있다.

우리 당이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당과 군대와 인민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것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여기고 전체 군대와 인민을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시켰을뿐아니라 당을 강화하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천만군민을 조직사상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묶어세움으로써 우리 혁명대오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속되였다.

지금과 같이 우리 나라가 분열되어있고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사회주의 책동이 그 어느때보다도 우심해지고있는 때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확신하고 승리에 대한 신심에 넘쳐 사회주의의 한길을 따라 계속 힘차게 나아가고있는것은 오랜 기간의 혁명투쟁과정에 당과 수령과 생사운명을 같이하면서 온갖 시련을 이겨낸 우리 군대와 인민이 당과 수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진심으로 따르며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있는것과 관련되어있다.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이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으로 결합되어 부닥치는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헤쳐나감으로써 자기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쳐나가고있는 나라가 다름아닌 우리 나라이다.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된 힘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무서울것이 없고 못해 낼 일이 없으며 우리 식 사회주의가 승승장구하고있는것이다.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이 일심단결된 자주적주체의 위력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나 사회주의건설에서나 우리의 모든 승리의 근본담보로 되고있다.

이처럼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이 그 어떤 힘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일심동체가 되어 우리 혁명의 강력한 자주적인 주체를 이루고있는 여기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위력과 불패성의 원천의 하나가 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위력과 불패성의 원천은 다음으로 자주, 자립, 자위의 튼튼한 기초우에서 끊임없이 강화발전되어나가고있는데 있다.

사회주의제도가 자기의 위력과 불패성을 발휘하기 위하여서는 그것이 튼튼한 기초우에서 강화발전되어나가야 한다.

뿌리가 든든하지 못한 나무가 바람에 견딜수 없듯이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사회주의 제도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온갖 도전과 방해책동을 막아낼수 없으며 자기의 존재 자체를 유지할수 없다.

사회주의제도가 끊임없이 강화발전되어나가자면 정치적자주성을 견지하고 경제적자립을 이룩하며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하여야 한다.

정치적자주성은 자주독립국가의 첫째가는 징표이며 체일생명이다.

정권은 있어도 자주성이 없는 나라는 사실상 자주독립국가라고 말할수 없으며 자주성이 없는 민족은 식민지예속과 노예적굴종의 처지를 면할수 없다.

어떤 민족이든지 정치에서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보장할수 있으며 행복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경제적자립은 정치적자주성의 물질적기초이고 부강하고 문명한 독립국가건설의 필수적조건이다.

경제적으로 외세에 의존하는 나라는 정치적으로도 다른 나라의 추종국가로 되는것을 면할수 없다. 경제적예속은 정치적예속을 낳으며 경제적불평등은 정치적불평등을 가져온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여야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정치적자주권을 행사할수 있으며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물질적으로 보장하여줄수 있다.

국방에서 자위는 나라의 정치적독립과 경제적자립의 군사적담보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안전을 지킬수 있는 자위적국방력을 가지지 못한 국가는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라고 말할수 없다.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하여야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을 물리치고 나라의 정치적독립과 경제적자립을 고수할수 있으며 혁명의 전취물과 인민의 안전을 보장할수 있다.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하는것은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원칙이며 우리 당과 국가가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는 혁명로선이다.

우리 당과 국가는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의 전행정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왔다.

력사의 준엄한 시련을 뚫고 주체사상, 선군사상이 가리키는 한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여온 우리 당과 국가는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다.

우리 당과 국가는 그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 모든것을 우리의 사상, 우리의 요구와 리

익에 맞게 우리가 결심하고 마음먹은대로 당당히 해나가며 사회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정치적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해나가는 자주적인 정치를 실시하여왔다.

뿐만아니라 인민들의 물질적수요를 자체로 보장하면서 제발로 걸어나갈수 있는 자립적인 경제를 건설하였으며 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는 자위적인 국방력을 마련해놓았다.

우리 당과 국가가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을 견지하는것을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의 근본문제의 하나로 내세우고 철저히 구현하여왔기에 세기적으로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는 가장 권위있고 존엄높은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될수 있었다.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가 확고히 실현됨으로써 우리 나라는 모든 분야에서 남에게 예속되거나 의존하지 않고 자체의 힘으로 끊임없이 발전해나가는 주체가 된 자주적인 사회주의나라로 위용떨치고있다.

이처럼 사회주의를 위한 창조와 건설의 거창한 투쟁속에서 마련된 자주, 자립, 자위의 튼튼한 기초우에서 끊임없이 강화발전되어나가고있는 여기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위력과 불패성의 원천의 다른 하나가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위력과 불패성의 원천에 대하여 잘 알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더욱 힘있게 과시해나가야 할것이다.